

곡성 단군전 '풍치숲'



곡성 3·1공원 전경. 단군전 입구 옆 백당기념관, 돌계단 밑으로 기념탑과 백당 동상, 한반도 모양의 관목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숲 속의 전남

〈2〉단군전 풍치숲·지석강변 돌레길



분홍색과 붉은 철쭉으로 장식한 지석강변. 쓰레기로 뒤덮였던 공간이 꽃밭으로 바뀌면서 남평의 명소가 부상하고 있다.

나주 남평 지석강변 돌레길

# 나라를 지켜준 이들을 기억한다

3·1독립만세운동의 거점 민족정기 살아숨쉬는 듯 한반도 모양 관목도 심어

시조 단군을 보신 곡성 단군전은 일제 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곡성보통학교 교사 백당 신태운(1885~1961) 선생은 1914년 귀향해 1916년 후학들의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정리(鶴亭里) 삼인동에 건립했다가 1931년에 이곳으로 옮겨 중건했다. 1991년 건국훈장에 국장을 받은 백당은 2년간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 대한정사, 과거사철요, 대한사략운기 등의 저서를 남겼고, 이후 가산 물수, 10년 자격박탈 등 갖은 고초를 받았다.



(사)국조단군곡성송모회 등의 노력으로 공원 내에 자리한 곡성 3·1운동기념탑.

다. 그 가운데 잔디에는 한반도 모양으로 관목을 심어두었다. 3·1공원은 이렇게 구성됐다. '풍치 숲'은 이들을 소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감싸고, 철쭉으로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 매년 10월 3일 개관절과 3월 15일 어천절에 이곳에서 단군 제사를 지내고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사)국조단군곡성송모회의 주도로 같은

- 풍치숲은
  - 주소: 곡성군 학정리 99-2
  - 면적: 1243㎡
  - 내역: 배롱나무, 소나무 30그루, 철쭉 2000그루, 지주대, 조경석
  - 장소: 곡성 3·1공원 내외
  - 목적: 경관 조성 등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민족정기가 살아 있는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난 2005년 12월 9일 등록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소나무 28주는 곡성군 죽곡면에 거주하는 진송농원 대표 문상우씨가 기증했으며, 이미선 곡성군 공원녹지팀장, 김진희 주무관 등은 직접 경남 거창까지 찾아가 나무를 구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무를 보지 않고 주문했다가 후회하는 일을 미연에 예방한 것이다. 128명의 곡성송모회 회원들은 자연석, 팽나무 등을 기증하고, 직접 심었으며, 손수 이곳저곳을 꾸렀다.

##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숲 꾸미고 싶었죠”

**김학근 국조단군곡성송모회장**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공간을 숲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김학근(81) (사)국조단군곡성송모회장은 3·1공원의 소유단체의 대표이자 지금까지 이 공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곳을 성역화해 모돈이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도장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그렇게 만들었다. 여수 여천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을 떠난 뒤 고향에 온 김 회장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당연히 이 단군전이었다.

10여 년 전 당시만 해도 외로이 서 있었던 단군전에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5000만원을 들여 백당기념관을 짓고, 곡성군을 설득해 곡성 3·1운동기념탑을 세운 것도 그의 정열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나이와 건강 문제로 잠시 회장을 내려두었지만, 그 때마다 회원들의 성화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나무를 기증받고 후원을 받아 공원 곳곳을 꾸미며, 찾는 이를 안내하는 것은 이미 그의 일상처럼 돼버렸다. “아이고,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시조 단군과 자랑스러운 조상을 제대로 모시



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여기저기 다닌 것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서서히 후손들이 꼭 찾아야 할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공원을 볼 때면 뿌듯함도 느낀다. “숲속의 전남 사업이 없었다면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곡성군과 전남도가 도와주니 더 힘을 내겠습니다.”

# 강변을 걷는 이에게 축복이 된다

쓰레기·잡초로 뒤덮였던 곳 황토 깔고 철쭉 꽃밭 만들어 시민에 평온주는 힐링명소로

남평은 전남의 고도(古都) 나주와 일제강점기 이후 새로운 중심도시로 거듭난 광주를 잇는 위치에 있다. 남평은 나주보다 오히려 광주 쪽에 더 붙어있으며, 화순 도곡과 바로 연결해 있다. 남평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나주군과 병합되기 전까지 엄연한 하나의 군(郡)이었다. 그만큼 지역의 세(勢)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력을 유지하게 한 것은 어쩌면 지석강이었을 것이다. 강 양편에 남평평야가 이곳을 풍성하게 해왔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석강의 발원지는 화순군 이양면 예치와 청룡면 화학산이며, 능주면을 지나 남평을 거쳐 영산강으로 흘러든다. 53.5km의 이 강은 남평읍에서 화순군 능주면 사이의 4km 부분을 드들강이라고 부른다. 드들강이 더 정겹게 들리고, 더 자주 쓰인다. 그러나 명칭이 생겨난



지석강변 철쭉 꽃밭을 돌보고 있는 지역주민들.

이유를 들어보면 오싹해진다. 그 옛날 제방을 쌓는데, 계속 무너져내려 디딜이라는 숫처녀를 제물로 바친 뒤에야 무사히 공사를 끝냈으며, 디딜이라는 숫처녀의 이름이 한참이 지나 드들로 음이 바뀌었다는 전설이 있다. 꼭 그래서인지는 아니겠지만, 3년 전부터 남평읍새마을부녀회는 마치 숫처녀 디딜을 기리듯 읍사무소 인근 강변에 아름다운 철쭉을 심고 있다. 김순례(여·

- 지석강변 돌레길은
  - 주소: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209-3 외 8
  - 면적: 4000㎡
  - 내역: 철쭉 2만2000그루, 치자나무 700그루, 조팝나무 2000그루
  - 장소: 지석강변
  - 목적: 경관 조성 등

57)씨가 지난 2014년 부녀회장에 취임한 후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쓰레기와 잡초로 방치되다시피했던 강변의 생태와 경관을 바꿔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숲’ 공모에 참여해 강변 400m 구간(면적 4,000㎡)에 철쭉 2만2,000그루 등을 심었다. 150명의 회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 쓰레기를 치우고, 노면을 정리한 뒤 황토를 깔아 철쭉 꽃밭을 만들었다. 회원들은 앞으로 5년간 꽃밭을 ‘예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지저분했던 강변 산뜻한 꽃길 탈바꿈 흐뭇”

**김순례 남평읍새마을부녀회장**  
지난 5월 4일 오전 철쭉 꽃밭에 나오기로 했던 김순례(여·57) 남평읍새마을부녀회장은 인근 남평농협에서 회원들과 함께 두부를 만들고 돼지고기를 삶느라 여념이 없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남평읍내 어르신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철쭉이 심어진 곳으로)가지죠.” 시원시원하게 지석강변으로 안내한

그녀는 “오다가다 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하게 된 일”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시와 전남도를 설득해 지난 2014년부터 철쭉을 심기 시작해 이제는 1km가 넘는 꽃밭이 조성됐다. “앞으로 보식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평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황면 출신인 김 회장은 남평 사내를 만나 30년 이상을 남평읍 대교리에 살고 있다. 300세대가 사는 남평읍



대교리 3구의 이장까지 맡았던 그녀는 15년 전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부녀회에 가입한 뒤 5년 전 회장에 취임했다. 앞으로의 소망은 소박하다. “내년 임기 끝나면 이제 맘 편히 저와 남편, 가족의 건강을 살펴며 철쭉 가득한 지석강변을 거닐고 싶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